



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송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24위 복자

복자 이중배 마르티노

(1749-1801)



이중배는 경기도 여주의 양반 집안 출신으로 시원시원하고 활달하면서도 거칠고 사나운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입교 후에도 그 성격은 바뀌지 않았는데, 다른 한편에선 호쾌한 성격으로 주변 시선에 굴하지 않고 가족에게 교리를 전하며 제사도 지내지 않았다.

이중배는 1800년 주님 부활 대축일을 맞아 동료 신자들과 함께 모였다가 밀고자의 신고로 체포되었다. 그런데 옥에 갇힌 그에게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본래 그는 약간의 의술만 알고 있었을 뿐이지만, 그곳에서 특출한 효험이 발휘되어 많은 병을 낫게 한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치료를 받으려고 온 사람들로 옥이 장터같이 되기도 하였다.

이중배는 같은 해 10월, 경기 감영으로 이송되었다. 이내 신유박해가 시작되어 온갖 고문을 받았지만, 결코 배교하지 않았다. 그러자 조정에서는 ‘그를 고향으로 돌려보내 처형함으로써 그곳 백성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동료들과 함께 여주로 압송되어 1801년 4월 25일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그의 나이 50세가량이었다.

성화_김형주 작,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5

연중 제21주일

소리 주보 ▶



입당송 시편 86(85),1-3 참조

주님, 귀를 기울이소서. 제게 응답하소서. 당신 종을 구해 주소서. 당신은 저의 하느님, 당신을 신뢰하나이다. 당신께 온 종일 부르짖사오니,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제1독서 이사 66,18-21

화답송 시편 117(116),1,2ㄱ-ㄴ(◎마르 16,15 참조)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모든 겨레들아. ◎

○ 우리 위한 주님 사랑 굳건하여라. 주님의 진실하심 영원하여라. ◎

제2독서 히브 12,5-7,11-13

복음 환호송 요한 14,6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

복음 루카 13,22-30

영성체송 시편 104(103),13-15 참조

주님,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은 땅에서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 흥겹게 하는 술을 주시나이다.

산헤립의 침공과 예루살렘의 구원



올리브산에서 바라본 시온산 전경

오늘 제1독서에는 주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 시온산을 직접 보면, 특별히 거룩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대인과 아랍 무슬림들 사이의 질은 갈등만 보게 될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이 지금껏 “거룩한 산”으로 일컬어지는 건 주님께서 드러내신 구원 역사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구약 시대 일어난 한 사건이 주요 고비였는데요, 바로 기원전 701년 아시리아의 산헤립 임금이 유다 왕국을 침공한 일입니다.

이는 가히 ‘유대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역사에서 사라졌을 법한 위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2열왕 18—19장과 이사 36—37장에서 알려줍니다. 다만 성경은 이를 천사 개입 사화로 전하며(2열왕 19,35-37 등) 이스라엘 측의 승리처럼 묘사하지만, 산헤립의 침공은 아시리아의 패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산헤립의 연대기(아시리아 문헌)는 히즈키야 임금이 항복하고 조공하였음을 부각하며 끝맺고, 열왕기 하권에도 거의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18,14-16). 만약 산헤립이 패해서 돌아갔다면, 이후에도 유다 왕국이 계속 아시리아에 복속되었던 상황을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에서 이를 이스라엘의 승리처럼 서술한 건 유다 백성이 그 결과를 기적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시리아의 공격을 같이 받은 페니키아와 필리스티아는 수도가 함락되고 임금이 폐위되지만, 유다 임금 히즈키야는 건재했고 예루살렘도 함락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구나 아시리아는 정복민 유배 정책을 자주 펼쳤는데,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에 망한 북왕국이 역사에

서 사라진 이유도 이 유배 정책에 있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은 정복민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 황폐한 땅을 개간하게 하는 등 경제적 효과를 노렸고, 고향과 연을 끊게 만들어 자국에 잘 동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봉쇄했을 때도 그들은 주민들의 항복을 유도하며 유배를 예고하였습니다(2열왕 18,32). 그런데 예루살렘은 극적으로 구원받은 건, 어떤 분명하지 않은 이유로 아시리아가 갑자기 철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7세기 후반에는 오히려 유다 백성이 아시리아의 멸망을 보게 되므로, 이 역시 승리처럼 여겼을 법합니다. 아시리아는 바빌론과 메디아의 연합군에 패해 멸망합니다. 이런 반전은 하느님만 하실 수 있다고 생각되어 천사 개입 사화가 쓰였고, 이런 구원을 드높이려 홍해의 기적에 버금가는 사건으로 서술한 것입니다.

“그날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해 주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죽어 있는 이집트인들을 보게 되었다”(탈출 14,30).

“그날 밤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 아시리아 진영에서 십팔만 오천 명을 쳤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들이 모두 죽어 주검뿐이었다”(2열왕 19,35).

바로 이런 구원이 있었기에 성경의 역사는 계속될 수 있었고, 오늘 제1독서의 말씀처럼 “모든 민족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와 순례하며, 그곳이 자기네 성지임도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하느님 백성과 그리스도인

「교회헌장」 제15항

「교회헌장」 제15항은 ‘가톨릭 신자가 아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이 교회와 완전히 합체되었다는 것은 14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앙 고백, 성사 그리고 교회 통치와 친교로 그리스도와 결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는 “완전한 신앙을 고백”하지 않거나 “베드로의 후계자 아래에서 친교의 일치”를 보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 요한 23세 교황의 첫 번째 회칙 「베드로좌를 향하여」(Ad petri Cathedram)에 의하면 전자는 개신교 신자들을, 후자는 정교회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사람들과도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규범으로 삼으며, 열정적인 신심이 있고, 성부 하느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믿습니다. 세례의 인호로 그리스도와 결합하고, 다른 성사들까지도 부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또한 주교직을 인정하고 성찬례를 거행하며,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동정 마리아에 대한 신심도 있습니다.

또한 공의회는 “기도와 다른 영적 은혜의 친교”가 있다고 언급하는데, 여기서 ‘친교’(communio)란 영적 자산을 ‘공유’(communio)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끝으로 공의회는 ‘성령 안에서 어떤 결합’이 참되다고 언급합니다. 다만 ‘어떤’(quaedam, 어느 정도)이란 표현을 넣음으로써, 그 결합이 가톨릭교회의 경우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은혜와 은총 그리고 성화 능력으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

떤 이들은 피를 흘리기까지 그 힘을 복돋아 주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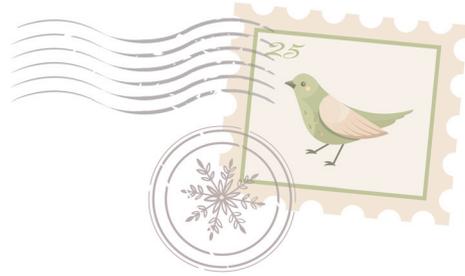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완전히 합체되지 않은 다른 교회들과도 여러 가지 이유로 결합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공의회는 끝으로 성령과 교회의 역할에 대한 언급으로 15항을 마무리합니다. 먼저 성령께서는 모든 이가 하나의 양 떼인 ‘교회 안에서’ 유일한 참된 목자이신 ‘그리스도 아래서’ 평화롭게 일치하려는 열망과 활동을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에게 일으켜주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일치가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희망하고 행동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표지가 교회의 얼굴에서 찬란히 빛나도록” 공의회는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정화와 쇄신을 권고합니다.



교회는 완전한 신앙을 고백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과도 여러 이유로 결합되어 있다.
- 프란치스코 교황과 루터교 세계연맹 대표단 (2024. 6. 20. 바티칸 뉴스)

공의회는 이 마지막 언급은 교회의 비가시성을 강조하는 개신교의 입장, 곧 그리스도의 나라가 형식상의 얼굴 없이 성령 안에서 존재한다는 루터의 언급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사적 상징성 안에서 “가시적 집단인 동시에 영적인 공동체”이고 “교계 조직으로 이루어진 단체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비체”입니다. ☪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지선미 마리아 / 신곡동 성당

“엄마! 구조 헬기가 온대.” 학교 동아리 활동으로 등산을 갔다가 다친 고3 큰아들의 전화 너머로 들려온 말이였다. 다쳐서 하산이 늦어진다고래 받을 조금 삐었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헬기라니... 크게 다친 것 같아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했다. 급한 마음에 헬기가 내릴 것 같은 병원으로 무작정 차를 몰았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불안이 엄습할 때 생각나는 건 하느님뿐이었다. 목주를 손에 꼭 쥐고 ‘하느님, 제발 아들을 보살펴주세요.’라는 기도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어느새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응급실에서 만난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나를 안심시키려 했다. 아들은 무릎에 고인 피를 빼고, 며칠 후에는 끊어진 인대를 재건하는 수술을 받았다.

“헬기도 다 타보고 승진했네! 아들, 그런데 안 무서웠어?” 내 물음에 아들은 안 무서웠다고, 소방관과 산악구조대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헬기 타는 곳으로 잘 갔고, 하늘로 들어 올려질 때는 놀이기구를 타는 것 같았다고 모험담처럼 이야기했다. 그때 명하며 내 마음이 울렸다. ‘아! 나도 이런 마음으로 살면 되겠구나.’

친한 동생이 내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언니 인생, 참 스펙타클하다. 막장 드라마 같아.”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세상 사람들이 막장 또는 불행이라고 말하는 일들 덕분에, 나는 하느님을 더 궁금해하고 생각하고 의지하게 됐다.

그중 가장 힘겹지만 한편으로 자랑하고 싶은 일은 내가 지적장애 아이를 둔 엄마라는 거다. 남들은 ‘업보다.’ ‘전생의 죄 탓이다.’ ‘굿을 해라.’ ‘삼재다.’ 했지만, 난 둘째 아이로 인해 하느님을 찾았고 그분을 마음으로 만나게 되었다. 하느님께선 아집과 편견, 혐오에 사로잡혀 있던 나를 일깨워 주셨고, 하느님 나라의 진리와 평화롭고 평등한 세상을 알게 해주셨다. 그곳은 양과 사자가 친구 되고 독사 굴에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으며 나의 죄를 대신해 희생하신 예수님께서 계신 나라다. 그 나라에선 아이가 이곳에서 받는 불평등과 혐오의 시선, 사람들의 편견으로 인한 상처가 없을 것이다.

나의 이런 희망이 부끄럽지 않다. 내가 보내진 이곳에서 주님께서 주신 시간만큼 사랑하며 살다가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모든 걸 아시는 아버지 하느님께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장애 가진 아이와 장애아이를 둔 부모님들께 말하고 싶다.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라고, 아이가 아픈 건 당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그저 우연한 사고처럼 닥쳤지만 그 아이로 인해 낮은 세상 속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보며 서로 사랑 속에 살아갈 수 있다고. 그리고 가끔 하느님 나라가 이 세상에 와 있음을 따뜻한 사람들을 통해 경험할 수 있고, 우리의 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그분 안에서 함께 배우며 같이 살아가자고 말이다. 🌻



교구
소식

한마음 성경공부 3단계 - 바오로 서간을 통한 바오로의 영성

주제	일시 / 본관 대강당	일시 / 통나무강당
제1강 바오로 사도의 생애와 회심 안에 담긴 영성과 바오로 서간 개요	9/1(월) 14시	9/6(토) 16시
제2강 바오로 사도의 순례 여정	9/8(월) 14시	9/13(토) 16시
제3강 바오로 사도의 신학 : 구원과 성찬	9/15(월) 14시	9/20(토) 16시
제4강 바오로 사도의 신학 : 교회와 성령	9/22(월) 14시	9/27(토) 16시

회비 1인 8만원 [총4회, 교차 출석 가능]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대상 모든 신자 강사 김경진 베드로 신부
 문의 031-840-0018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내선번호 211)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일시 9/5(금) 15시 장소 주교좌 의정부 성당

고3, 일반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 9/7(주일) 13:30 장소 의정부교구청 5층 경당

의정부교구 제150차 ME 주말

48시간의 기적, ME 주말에 부부님을 초대합니다.

날짜 9/5(금)~7(주일) 장소 예수마음배움터 (파주)
 대상 3년 이상 혼인생활 중인 부부 문의 010-9504-0419 ME 주말분과 대표

교리교사, 청년 전례 아카데미 3차 신청

일시 9/6(토) 14시~16시 장소 청년센터 에피파니아 (일산동구 중앙로 1261번길 77, 4층)
 주제 교회의 칠성사와 전례 강사 송정호 알베르토 신부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내용 칠성사와 전례를 통해 교회의 신비를 더 깊이 배우는 시간
 접수 8/26(화)까지 문의·등록 ▶

2027 세계청년대회(WYD) 의정부 교구대회 조직위원회 직원 모집

업무 WYD 관련 사무·행정·회계 일체 근무 2025년 10/13(월) ~ 2027년 10/12(화) [24개월]
 시간 월~금, 09시~18시 근무지 의정부교구청 및 청년센터 (에피파니아·에파타)
 자격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WYD 참가 유경험자, 외국어 가능자 우대)
 제출 이력서, 자기소개서, 사제추천서, 교적증명서, 졸업증명서 ※ 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자유 양식
 접수 9/14(주일)까지, 이메일 youth@uca.or.kr 문의 031-850-1456 청소년사목국

전신자 성경 읽기

8/24(주일)~30(토) : 요한 14,15-31



8/30(토) 해설 “천주교의정부교구” 채널 시청

특별헌금

헌금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결과보고

지난 7월 20일, **농민 주일 특별헌금**으로 124,619,810원이 모여졌습니다.

이는 생태환경위원회로 보내져 우리농촌살리기운동과 생태환경보존을 위한 활동에 사용될 것입니다.

 **미사 · 피정 ▶▶**

한마음다락방 피정 - 18기

2천년 전 초기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 하느님의 영적 위로와 위안을 받으며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

날짜: 8/29(금)~30(토)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동

대상: 단체와 가족, 부부 및 개인 모두 가능

인원: 30명 (선착순)

문의: 031-840-0018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미사

일시: 9/1(월) 15시

장소: 서울대교구 명동대성당

주제: 박현동 아바스와 사제단

문의: 02-460-7622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사제·수도자와 함께하는 제주 산들순례 피정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개인 및 각 본당 단체에 맞는 프로그램 진행

생태순례: 9/15(월)~17(수), 9/26(금)~28(주일),

10/1(수)~3(금), 10/12(주일)~14(화),

10/26(주일)~29(수), 11/2(주일)~4(화),

11/22(토)~25(화), 12/6(토)~8(월),

12/12(금)~14(주일)

성지순례(추자도): 9/9(화)~12(금),

10/16(목)~19(주일), 11/22(토)~25(화)

장소: 제주 면형의 집

문의: 064-732-4702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청주 초정성령회관 1박2일 치유 피정

일시: 매월 마지막(토) 14시 ~ (주일) 14시

회비: 2만원 (1박3식, 청소년 무료)

장소: 초정성령회관

문의: 043-213-9103, 010-5482-6744

※ 셔틀버스 운행 (조직원역,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토아올람 화요 치유 피정

일시: 매주(화) 12시~16시, 명동가톨릭회관 7층

강사: 8/26 이상기 회장, 9/2 김성대 신부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쉼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2025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제주성지순례(추자도포함): 9/7(주일)~10(수)

9/18(목)~21(주일), 11/15(토)~18(화)

자연순례: 9/1(월)~3(수), 10/2(목)~4(토)

체나콜로대피정 포함: 10/18(토)~20(월)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의정부교구 성령새신 금요밤 기도회

일시: 8/29(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주제: 찬양 기도회

강사: 정대영 모이세 신부 (강의, 미사, 안수)

문의: 010-2127-0032

의정부교구 5지구 영성 피정

일시: 8/25(월) 13:40, 화정동 성당 403호

강사: 송동훈 요한세례자 신부 (인천교구)

강의와 안수

문의: 010-8917-0090

강우일 주교와 함께 푸른꿈 제주섬 피정

제주섬에서 쉼, 순례(성지, 자연), 말씀초대

일시: 9/18(목)~20(토), 10/30(목)~11/1(토),

11/11(화)~13(목)

장소: 성이시돌 피정의집 (한국통합사목센터)

대상: 개인, 단체, 가족, 본당구반장

문의: 010-9670-9775, 010-7200-4567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피정 및 교육

영신수련 2박3일: 9/19(토)~21(주일)

하루생태피정 숲: 9/26(금)

내안의 생명력 되찾기 피정 1박2일: 9/20(토)~21(주일)

장소: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파주 운정)

문의: 010-9099-2337 예수마음배움터

www.jesumaum.org

특별 초청 강의 - 조남구 마르코 신부

일시: 9/3(수) 18:30~20:30, 녹번동 성당 2층 소성전

주제: 찬양치유, 말씀, 미사, 안수

강사: 조남구 마르코 신부 (공도동 주임)

문의: 010-2452-3359 (녹번역 4번 출구)

 **교육 · 모집 ▶▶**

2025년 2학기 여정 성경공부 비대면 개강

예언서(이사야서~12소예언서): 9/1(월)부터,

매주(월) 20시~22시

가톨릭서간, 요한묵시록: 9/2(화)부터,

매주(화) 10시~12시

시서와지혜서(시편~집회서): 9/2(화)부터,

매주(화) 20시~22시

문의: 010-8352-9986 일산 여정

마리아학교 9월 학기 수강자 모집

일시: 9/2~2/28, 매주(화) 14시~16시 [대면반]

9/4~2/28, 매주(목) 20시~22시 [온라인반]

장소: 가톨릭회관 205호

내용: 성모님에 관한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배움

문의: 010-2724-4819 서울 마리아 학교

한국카리타스협회 직원 모집

분야: 국내 사회복지 1명

(사회복지사 자격증, 실무 경력자 우대)

접수: 9/3(수)까지, 이메일 ckna@caritas.or.kr

※ 홈페이지 www.caritas.or.kr 참조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관내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마석 성당 사무장 모집

인원: 사무장 1명

대상: 본당 사무장 또는 사무원 경력자

근무: 주40시간 (토·주일 근무, 주중 휴무, 추후 협의)

제출: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임신부 추천서,

교적증명서,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급여 및 복지: (재)천주교의정부교구유지재단

규정에 따름

접수: 우편 또는 이메일 kth0643@uca.or.kr

9/14(주일) 우체국 소인까지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로 38

채용: 서류심사 후 개별 면접 통보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인천교구 지혜의 샘 프로그램

성경을 통한 치유대피정: 8/27(수) 10~17시

강사: 송봉모 신부, 한영임 회장 (점심무료제공)

성경통독을 위한 길잡이 그림들

내용: 그림들을 통해 성경의 내용을 외우며 통독

(등록 3만원, 교재비 별도)

강의: 9/1부터 창세기 매주(월) / 여호수아기 매주(수)

통독: 매주 월, 수, 목, 주일 - 오전/오후반

장소: 부천시 경인로 61-1 인천교구 지혜의샘

(중동역 5분거리)

문의: 010-3248-9705, 유튜브 '지혜의샘 북방'

2026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신입생 모집

사제지망 일반예신 학생 및 체계적인 신학 공부를 희망하는 수도자, 남·여 평신도를 모집합니다.

자격: 고교졸업(예정)자, 대학수료자, 수도자,

만학도(만 30세 이상)

접수: 9/8(월)~12(금), 인터넷 접수

면접: 10/31(금)

문의: 02-740-9704~5

https://songsin.catholic.ac.kr

온라인 단기 선교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일시: 11/3(월)~13(목) 19시~21시

대상: 선교에 관심 있는 평신도, 사제, 수도자

회비: 10만 원

문의: 02-3673-2528, 010-2730-7673

한국외방선교회

가톨릭꽃동네대학교 2026 신입생 수시 모집

가톨릭 보건·복지 특성화 대학, 재학생 1인당 평균 장학금 550만원, 취업률 74.4% 전국 11위, 신입생 전원 장학금 지급
모집: 간호학과, 자율전공학부(사회복지, 상담심리)
접수: 9/8(월)~12(금)
문의: 043-270-0100 (0109)

참생명학교 심화교육 - 생명위원회

일시: 9/19~11/28, 매주(금) 20시~21:30 [10주간]
대상: 생명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관심 있는 누구나 (기초과정 미이수자 신청 가능)
강의: 온라인 (ZOOM) / 회비: 5만원
신청: 생명위원회 홈페이지
문의: 02-727-2351

용현동 성당 반주자 모집

일시: 매주일 10:30 교중미사
자격: 성가대 반주 경험자
서류: 신청서, 교적증명서, 이력서 (서류심사 후 면접)
문의: 031-851-9190

퇴계원 성당 교중미사 반주자 모집

자격: 전공자나 교중미사 반주 유경험자
서류: 교적증명서, 이력서
접수: 9/7까지, eunajoy@ujb.catholic.or.kr

SH행복연구소3주년 북토크 - 구원의책 요한묵시록

세상에서 제일 쉬운 묵시록 계시록 종말론 북토크
일시: 9/11(목) 14시
장소: 북카페 레벤 (7호선 논현역 1번 출구)
내용: 혼란한 삶에 지친 우리가 함께가는 길에 만나야 할 책
강사: 방영미 (가톨릭대학교 종교학 박사)
회비: 1만원 (선착순 40명)
접수: 010-2053-8695 주흥미 세레나 (문자)

성가발성 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직강
시스띠나음악원: 일산(금) 11시
문의: 010-9842-8818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도박, 인터넷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
진료: 월~금, 09시~17시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성지순례 - 14박15일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1월 말)
주관: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문의: 010-5735-4578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11/7(금)~16(주일) 동부지중해 크루즈 (479만원)
11/10(월)~21(금) 멕시코, 페루 (795만원)
11/17(월)~21(금) 베트남 남부 (160만원)
11/18(화)~28(금) 히년 이탈리아 (450만원)
문의: 02-2281-9070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10/8(수) 추석 특선 - 일본 나가사키 (4일, 160만원)
10/18(토) 알프스 주변 수도원 순례 및 성모성지 (12일, 560만)
11/7(금) 이스라엘, 요르단 (12일, 545만원)
11/21(금) 이탈리아 일주 (12일, 560만원)
12/4(목) 베트남 다낭 성모성지 (5일, 155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9/19(금) 일본 나가사키, 운젠, 히라도 (4일)
10/9(목) 스페인, 포르투갈, 루르드 (12일)
10/13(월)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10/28(화) 산티아고 도보 순례 (12일)
11/10(월) 히년 이탈리아 일주 (11일)
1/13(화) 유럽 4개국 성모 3대 발현지 (12일)
1/17(토) 멕시코 과달루페, 페루 (12일)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619호

베트남 라방 성모발현 성지

12/8(월) 출발 (5일, 아시아나)
라방성지숙소 1박포함
문의: 010-5909-5997 김명윤 베네딕도

가톨릭평화방송여행사 히년특집 해외 성지순례

10/29(수)~11/8(토)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메주고리에 (KE)
11/5(수)~29(토) 이탈리아 중부 소도시 (KE)
11/18(화)~29(토)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성모발현지 (KE)
11/19(수)~30(주일) 몰타, 시칠리아, 튀니지 (TK)
11/24(월)~27(목) 마카오 (KE)
문의: 1551-1053, www.cpbctour.co.kr

라파엘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9/8(월), 10/20(월) 유럽 4개국 성모발현지 (12일, 495만원)
10/14(화) 조지아, 아르메니아 (10일, 399만원)
10/13(월), 10/20(월)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69만원)
10/22(수) 이탈리아, 메주고리에 (11일, 495만원)
11/4(화), 11/12(수) 이탈리아 (11일, 국적기직항)
11/5(수) 과달루페, 칸쿤 (10일, 695만원)
12/5(금) 베트남 다낭 (5일, 159만원)
문의: 02-778-8565 라파엘 여행사

페이

가톨릭 하상 (가톨릭페이)



교무금: 책정은 교적 본당에서 하고, 납부는 가톨릭페이로 하세요.
미사예물: 가톨릭페이를 사용하는 모든 성당에서 미사 지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소 3일 전 신청)
주일헌금: 현금이 없어도 QR을 통해 미사 중에 봉헌할 수 있습니다.
기타헌금: 여러가지 다른 종류의 기부금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 하상을 설치하고 로그인하세요!

- 1. 교무금 납부 내역 확인, 헌금 내역 확인
- 2. 정보: 우리 성당 미사 일정, 공지 사항, 매일 미사, 성경 읽기 등

공모

제1회 의정부교구 동영상 공모전

신앙생활 속 희망, 웃음, 위로, 감동이 담긴 영상을 공모합니다.
모집: 7/6(주일) ~ 9/7(주일)

자격: 의정부교구에 교적을 둔 신자

규격: 10분 이내, FHD(1920X1080) 이상

출품: 교구소식 공모전 게시물 참조 / QR 삽입

발표: 10/12자 후보 및 홈페이지

접수 ▶

시상: 대상 1명 50만원 / 우수상 2명 30만원 / 장려상 3명 20만원

문의: 031-850-1435, redglove@uca.or.kr

성녀 모니카와 성 아우구스티노

8월 27일은 성녀 모니카 기념일이고, 8월 28일은 성 아우구스티노 주교 학자 기념일입니다. 두 성인은 어머니와 아들 관계인데, 성인을 배출한 여느 그리스도인 가정과는 달리 온갖 우여곡절을 겪은 터라 이들의 삶은 더 큰 감동을 전해줍니다.

성녀 모니카는 332년 북아프리카 누미디아의 타가스테(오늘날 알제리의 수크아라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자 부모 아래서 온순하게 자란 성녀는 로마 제국의 관리이며 이교도였던 파트리키우스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들 아우구스티노, 나비기우스, 딸 페르페투아를 낳습니다. 모니카는 세속적인 남편과 까다로운 시어머니 때문에 고통을 겪는데, 희생과 기도로 370년 그들을 회개하고 개종하게 하였습니다. 남편은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으나, 이듬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아우구스티노는 아버지의 성격을 물려받아 일찍부터 어머니의 속을 썩였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그는 18세였는데, 세속적 성공을 바라고 신앙에는 무관심했습니다. 법률가가 될 생각으로 북아프리카 최고의 도시 카르타고에서 수사학을 공부하였고, 이때 방탕한 생활로 아들 아테오다투스도 갖게 됩니다. 373년경에는 마니교에 빠졌으며, 타가스테와 카르타고 등지에서 10여 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다 383년에는 로마로 건너가 수사학교를 세우고, 384년 가을에는 밀라노로 옮겨가 계속 교수로 일했습니다.

한편,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의 회심과 개종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로마와 밀라노까지 찾아간 모니카는 눈물로 기도하던 어느 날, 밀라노의 주교 성 암브로시오를 만나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이때, 암브로시오는 “안심하십시오. 이런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를 둔 아들은 결코 멸망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라며 위로했습니다. 아우구스티노는 이런 어머니의 기도에 더해, 암브로시오의 설교, 신플라톤 철학, 바오로 서간에 영향을 받아 마침내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안토니오 성인의 은수 생활 이야기에 감동하며 산책하던 중, “집어서 읽어라.”(Tolle, lege.) 하는 신비로운 소리를 듣고 성경을 펼치는데, 그의 눈에 들어온 건 바로 로마 13,13이었습니다: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그는 회개하여 암브로시오를 찾아가 예비 신자 교육을 받고, 387년 주님 부활 대축일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아우구스티노가 어머니, 아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려던 그해 11월 13일, 모니카는 로마 근교 오스티아에서 열병에 걸려 숨을 거두고 맙니다.

아우구스티노는 388년 타가스테로 돌아와 수도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391년에는 히포로 가 새로운 공동체를 설립하는데, 그곳에서 자기 지향과는 달리 사제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5년 후에는 히포의 주교가 됩니다. 그는 35년간 사목자로 헌신하는데, 「고백록」 「신국론」 「삼위일체론」 등 전해진 것만도 113개의 책과 논문, 200여 통의 편지, 500회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 방대하고 뛰어난 저술로 암브로시오, 예로니모, 대 그레고리오와 함께 4대 서방 교부에 꼽힙니다. 또한 주교관 내 세운 성직자 수도원의 규칙은 서방 수도 생활의 아버지인 성 베네딕토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430년, 76세의 나이로 하느님 품에 안겼습니다. 성녀 모니카는 어머니, 과부, 가톨릭 여성 단체의 수호성인이고, 성 아우구스티노는 신학자, 철학자, 신학생, 인쇄업자의 수호성인입니다. ☸



천주교의정부교구 **행주성당** 성모순례지

주 임 신 부 : 홍유선 임마누엘
연 령 회 : 박 베드로 (010-6205-7458)
사 무 실 : Tel. 031-974-1728
Fax. 031-972-8537

http://sd.uca.or.kr/hjsd1909
우 10440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44번길 50

성모봉소승진

주일미사		평일미사		성사 및 면담	
토요일	19:00	월, 화, 수, 목, 금	11:00	고해성사	매 미사 20분 전
주일	09:00			병자영성체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11:00			유아세례	
성 시간	매월 첫 금요일 15:00	단체 순례객 미사 신청		축복예식	상시, 사무실 문의
성모신심	매월 첫 토요일 11:00	사무실 문의		사제면담	

행주성당은 로마 성모대성전과 특별 영적 유대로 결합된 성모순례지성당입니다.

행주성당 전대사를 위한 통상적 조건

1.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
2. 행주성당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에 경건하게 참여한다.
3.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친다.

공동체 소식

- 이번 주 분당 축일 명단
23일 로 사: 김문숙, 류다빈
27일 모니카: 전은실, 유미형
28일 아오스탕: 양남수

전례

- 9월 성시간
일 시: 9월 5일 금요일 오후 3시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어 주님께 드리는 기도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월 성모 신심 미사
일 시 :9월 6일 토요일 오전 11시

공 지 / 단 체

- 9월 봉성체
일 시: 9월 4일 목요일 오전 11시 미사 후
- 첫영성체 교리 시작
8월 24일 오늘부터 오전 9시 미사 후에 첫영성체 교리가 시작됩니다. 10주간 예정입니다.

● 교중미사 주송자, 예물봉헌 담당

8월 24일	주송자	전옥자 수산나
	권우석 라파엘,	정윤정 라파엘라
8월 31일	주송자	오정화 아네스
	최성권 야고보,	김민숙 골롬바

우리들의 정성 (8/11 - 8/17)

- 교무금, 주일헌금
교 무 금 4건 560,000원
주 일 헌 금 979,000원
성모 승천 대축일 헌 금 1,556,000원
- 감사헌금
오현서 노아 300,000원
김홍환 가밀로 400,000원

교무금, 감사헌금	농협 217013-51-118905 (재)천주교의정부교구유지재단
-----------	--

계좌 입금시 책정자의 이름으로 하시고 입금 후 본당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성모순례지 후원금 656,000원
이동준 200,000원
최경순 30,000원
오현주 10,000원
초봉헌 416,000원

* 정기후원 문의는 사무실을 찾아주세요.

후원계좌	농협 301-0182-0168-51 (재)천주교의정부교구유지재단
------	--

- 금주의 복음 말씀 -

동쪽과 서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를 잡을 것이다.

화답송



(후렴)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 하 여 라.